

중소기업 계약학과 선정 ‘반도체융합’ 석사 모집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우리학교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아 오는 2학기부터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융합학과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다. 첨단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2023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17개교의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전문대학 5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사관’으로 구분된다. 두 모집단위 중 우리학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과 함께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반도체융합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약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운영비와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학생 등록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65%, 재직자가 소속한 산업체가 17.5%를 부담해 신입생이 납부하는 금액은 총액의 17.5%이다.

반도체융합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되는 두 분류의 계약학과 중 재교육형에 해당한다. 두 유형 모두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맺어 인력을 연계하지만 교육과 실무 중 무엇이 선행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선취업 후진학’을 실시해 실무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융합학과는 4년제 대학 학위가 있는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

반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반도체융합학과는 교육과정은 ▲공통필수 ▲반도체기초 ▲반도체설계 ▲반도체소자/공정 ▲반도체응용 ▲프로젝트실습으로 짜여졌다. 공통필수 과목에서는 경영학을 다루며, 이후 ▲반도체재료/소자기초 ▲반도체소자/공정 ▲전자회로(디지털)기초 ▲하드웨어 설계언어 등 기초 과목을 배운다. 이후 ▲VLSI 설계 ▲인공지능 반도체설계 ▲반도체메모리공학 ▲반도체메모리 소자적용 소재 전기적 물성 이해 등으로 심화 과정에 돌입하며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와 프로젝트 실습을 거친다. 졸업 시에는 공학석사를 수여한다.

반도체 분야는 산업체에서의 수요가 높아 유망산업으로 꼽히지만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반도체 인력 육성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우리학교는 이번 반도체융합학과 석사 과정 개설에 이어 학부 과정에도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한다. 반도체공학과는 오는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측은 “반도체 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실무형 교과과정을 도입해 현장에 있는 재직자를 재교육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신설 학과기 때문에 학부 과정과의 연계가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시간이 지난 이후 학부와 대학원이 함께 논의를 진행해 연계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게끔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사장 · 미래세대 대화 나눠

김경태 기자 dragonmoon2021@khu.ac.kr

지난 4일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열린 총장과의 토크콘서트에 이어 ‘2023 경희 미래세대 포럼 : 경희 미래세대와 경희학원 이사장과의 대화의 창’이 지난 5월 12일 서울캠퍼스(서울캠) 네오누리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과 학생기획단, 사전에 참여 신청한 서울캠과 국제캠 학생들로 이뤄졌다. 온·오프라인 질문 대부분은 환경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물어, 기후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조 이사장과 학생기획단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와 2부 주제는 각각 우리가 처한 ‘환경’ (▲기후변화 ▲문명의 위기 ▲사회적 시스템), ‘대학과 시민’ (▲미래세대 ▲뉴거버넌스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1부에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짧은 영상을 시청한 후 ▲엔비스(환경학술동아리) ▲별로(천체관측동아리) ▲연금술(응용화학학술동아리) 대표들과 조 이사장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세계가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인 선진국



‘2023 경희 미래세대 포럼 : 경희 미래세대와 경희학원 이사장과의 대화의 창’이 5월 12일 서울캠퍼스 네오누리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경태 기자)

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 이사장은 “기후위기로 예를 들면, 잘 사는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다. 선진국은 이와 같은 환경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부에서는 ▲유니피스(평화학술동아리) ▲휴머니티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대표들과 1부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화를 나눴다.

“대학만이 가진 가치와 역할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조 이사장은 “대학은 교육과 학술의 장,

나아가 지구적 인류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ESG 경영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지구적 목표는 산업구조와 경제구조, 특히 에너지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쉽게 변화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지금과 같은 담론회를 여는 것처럼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하는지를 우리 대학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대학의 역할을 제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학생들의 질문도 오갔다. 포럼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 전 안내받은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작성하면 사회자가 대신 질문하는 형식이었다. 이날 학생들은 총 14개의 질문을 작성했다. 이중 6개의 질문은 기후위기와 관련됐다. 현장에서 마이크로 직접 자

신의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 대부분도 ‘녹색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학교 온실가스 저감’을 건의하는 등 기후위기 속 대학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건의에 조 이사장은 “법인이 대학경영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훌륭한 의견이 학교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학교가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우리학교 교양과목인 세계와 시민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포럼에 참가한 정찬호(환경학및환경공학 2023) 씨는 “WNO 등 국제기구에서 ‘종말’이라는 비관적인 단어를 언급할 정도로 지구온난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만큼 경각심을 갖게 됐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경희, 시립 ‘정경대첩’ 개최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정경대학 학생회(에이블)와 시립대 정경대학 학생회(도란)가 시립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정경대첩: 천지개벽을 개최했다. 정경대첩은 경희대와 시립대 정경대학 간의 체육대회로 지난 14일에 진행됐다.

정경대첩에는 경기 참가자 120명의 학생과 스태프 60명, 관람객 약 70명이 참여했다. 경기 참가자는 20명씩 팀을 나눠 피구, 줄다리기 등의 팀별 경기가 1부와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는 경희대가 6경기 중 4개 경기를 이겨 4승 2패를 기록했다. 이후 2부에서는 6개 경기 중 경희대가 3개 경기, 시립대가 3개 경기를 이기며 무승부로 끝났다. 체전 후반부에 진행된 농구와 축구 경기는 각 23-56, 0-1로 아쉽게 패배했다.

본 행사의 개최에 대해 정경대학 김동현(미디어학 2021) 학생회장은 “정경대학이라는 하나의 단과대 차원에서의 소속감에 문제 의식을 느꼈다”며 “소속감을 갖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정경대인, 시립대 정경대와 개최를 하게 됐다”라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정경대첩에 경기 참가자로 참여한 최민정(행정학 2022)씨는 “학교는 달라도 같은 과라는 유대감을 통해 서로 반가워하는 게 신기하고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